

입주자 중심 고품질 아파트 공급 기여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 호응... "더 내실있게 운영할 것"

전북도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가 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는 신규 공동주택의 건설 시공 유도와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검수하는 것으로,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에 정자를 해당 주택의 품질검수단에 포함

시킴으로써 건설 시공 및 고품질 아파트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 품질검수단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어린이 등 분야별로 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골조 및 마감공사 완료 시기에 현장별로 2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정률 50% 시기에 입주예정자 대표를 건설현장에 초청하여 품질검수단 운영회의 및 현장 검수에 참관토록 하는 등 입주자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대우 푸르지오 건설현장 등 4개단지 2,822세대에 대한 검수단을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등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품질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건설시공으로 하자발생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에게 고품격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품질검수단을 운영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통하여 현재까지 22개 단지 13,553세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입주 전에 품질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입주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영등1동 채수훈 맞춤형복지계장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 기획공모전 대상



익산시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 채수훈(사진) 맞춤형복지계장이 지난 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201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 기획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7편(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3편)의 교육과정 기획안이 선정됐으며, 채수훈 계장은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맞춤형 사회복지 실무교육'을 제안해 대상(원장상 상급 일백만원)을 받았다.

채수훈 계장은 기획안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층원 확대에 따른 실무형 업무교육 시 일반복지행정 업무와 맞춤형 복지업무의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이 이뤄지면 두 업무 간의 연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당사와 현업종사자들이 교육기획에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되었다.

최종 심사에 참여한 김현진 교수(한국고원대학교)는 "선정작을 비롯한 응모작들이 신선하고 창의적인 교육주제를 담고 있었다며 "소관부서에서 잘 다듬어 보완하면 개발원의 대표과정으로 내놓아도 손색없는 기획들이 많은 것 같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한편 개발원은 이번에 출품된 기획안들을 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공개하고, 출품작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좋은 과정으로 발전시켜 내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영등동 자율방범대 저소득 주민 생필품 꾸러미 후원

익산시 영등동 자율방범대(대장 박은호)는 5일 오전 10시경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관내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필품 꾸러미(200만원 상당) 50개를 영등1, 2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날 생필품 꾸러미는 자율방범대 회원들의 화비로 마련했으며, 영등1동과 영등2동에서 추천을 받은 50명의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은호 영등동 자율방범대장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살기 좋은 영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율방범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민관협력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원광대 조영진 발전전략과장 전국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 23대 회장 선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조영진(사진) 기획처 발전전략과장인 조영진(사진)이 전국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 2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원광대에 따르면 현재 22대 회장으로 재임 중인 조영진 회장은 연임이 결정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23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1995년에 창립된 전국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는 2008년부터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4년제 모든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230여 개 대학이 활동하고 있다.

조영진 회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 위기관리를 위한 전략과제 등 기획 업무와 관련된 전국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교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9년 원광대에 임용된 조영진 회장은 비서실을 거쳐 산학기획과장 기획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발전전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군산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복지행정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올해 평가에서 군산시는 10개 동에서 맞춤형복지 전달부서를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이웃 간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우리 동네 보듬이 사업' 등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러한 성과는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활동이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원예농가, 하이베드 양액재배 도입



군산시 원예농가들이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방식인 하이베드 양액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나섰다.

하이베드 양액재배 시설은 농업인의 신체에 맞추어 지상 1m 높이에 베드를 설치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방식으로, 기존 토경재배에 비해 연작 장애의 감소, 노동력 절감, 수량 증대,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며, 정밀관시 시스템을 통해 양액을 공급함으로써 불필요한 비료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군산시 관내에는 3.5ha, 8동가가 토경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양액농업이 감소되고 작물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고품질의

/군산=김판곤기자

가치, 토마토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인창호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력이 약해진 토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이베드 양액재배시설을 점차적으로 지원 확대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시대에 걸맞은 원예시설기반을 조성하여 원예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영목재(대표이사 김종환)가 5일 군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군산지역 '사랑의 온도' 급상승!

신영목재 · 사립유치원연합회 등 이웃돕기성금품기탁 줄이어

15년을 한결같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해온 (주)신영목재(대표이사 김종환)가 5일 군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며, 꾸준한 나눔 활동에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우리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환 대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경제가 어렵지만 나눔 실천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미력하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군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박민정)는 소아암·희귀

난치성질환 아동들의 치료 지원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이웃돕기성금 750만원을 전달했다.

군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해에도 '희망나눔 사랑의 바자회'의 수익금과 각 유치원에서 모금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여 소아암·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민정 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우리 미래세대인 자라나는 아동들 중에 소아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따뜻한 온정 나눔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지부장 김현섭)에서도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돼지고기 600kg(400만원 상당)을 5일 군산시로 전달했다.

이번 기탁된 성품(돼지고기)은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에 전달해 연말을 맞아 온정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현섭 지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뜻깊고 행복한 기쁨을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